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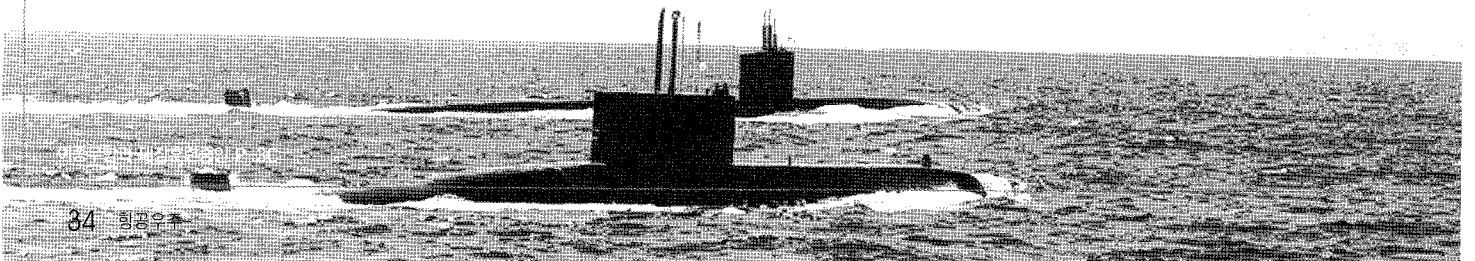
본격 추진된 해상초계기 2차사업

1995년부터 우리 해군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P-3C 오라이언(Orion). 지금까지 우리 해군의 대잠작전은 물론 해상초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주력 항공기이지만, 삼면의 바다를 8대의 P-3C로 감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해군은 오래 전부터 P-3 2차 사업을 추진했지만 IMF 등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이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사업은 지연을 거듭했다. 게다가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과 대형 상륙 함사업(LPX) 등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과 맞물리면서 P-3 항공기의 추가 도입은 요원한 듯 보였다. 다행히 2000년에 들어와서 마침내 국방부 사업추진팀이 편성됐고, 지난해 12월 14일에는 'P-3 2차 사업'의 최종 주사업자가 선정돼 해상초계기 2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사업을 위해 현재 주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 KAI는 이번 수주를 위해 2003년 6월 미국의 항공기 성능개발 전문업체인 L-3/IS(L-3 Integrated Systems)사와 기술도입방식을 통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했고, 항공기 직도입을 추진하던 미 록히드 마틴사와 치열하게 경쟁했다. 특히 공개입찰에서 국방부가 2003년 개정된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따라 대상 장비가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결정하는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으로 진행돼 양사간 가격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1억 3천만 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총 6천7백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따라 8대의 P-3 해상초계기가 2007년에 1대, 2008년에는 2대,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는 2009년에 나머지 5대가 한국 해군에 인도된다. 이를 위해 KAI는 1~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L-3/IS가 주도하고 KAI의 기술인력이 참여하여 공동성능개발팀(PPT)을 구성, 1~2호기를 생산하고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와는 달리 KAI가 주도하는 양산팀을 구성하고, L-3/IS가 기술지원을 하여 3~8호기



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AI는 임무장비 설계기술과 기체 수명연장 기술, 전술지원소 시스템 분석 및 체계 설계기술, 그리고 군수지원분석 기술 및 핵심임무장비에 관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KAI는 항공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국내 독자수행능력 확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P-3 성능개량 시장에도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향후 미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KAI는 L-3/IS사와 함께 양사간 협력합의서에 따라 첨단 전자장비와 항공기 성능개량에 대한 핵심기술 이전을 토대로 향후 동일 계열의 해상초계기를 운용중인 환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공동마케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일본을 제외한 대만, 태국, 파키스탄 등이 운용하고 있는 P-3기는 약 66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3 2차 사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도입 될 기체. 이번 P-3 2차 사업은 1차 사업에서처럼 새로 제작된 기체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령이 약 25~35년 정도의 중고 P-3B 기종으로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위치한 항공기 보존 및 재생센터 (AMARC)에 보관됐던 기체이다. KAI와 L-3/IS는 이 노후된 기체를 현재 운용중인 P-3C 성능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량할 예정인데, 개량이 완료된 기체는 실전배치 후 20년 또는 15,000비행시간을 보장

하고, 현대 해상작전에 운용할 수 있는 임무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체보강과 임무장비의 현대화이다. 이 부분에 있어 KAI의 협력업체인 미 L-3/IS사는 이미 미 해군 및 관세청, 호주, 그리스, 그리고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서 운용중인 P-3 해상초계기 300대 이상을 개량한 바 있는 전문업체로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기체 피로도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핵심 항공전자장비들도 최신장비로 대체해 신형 항공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P-3 2차 사업을 진행할 KAI는 현재 항공기 및 위성 부문의 정부조달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제작된 KF-16, KT-1 기본훈련기와 현재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T-50과 같은 군용기는 물론 SB427과 같은 민수 항공기, 그리고 인공위성 제작에 이르기까지 항공우주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성능개량 부문에서도 현재 한국 해군에서 운용중인 링스(Lynx) 로터 성능보강사업과 전군이 사용하고 있는 UH-60, 해군의 링스 Mk 99, 육군의 CH-47 헬기에 대한 전방감시적외선장비(FIIR) 장착사업을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

1.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P-3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11개국에 이른다.
2. L-3/IS사가 성능개량한 P-3 해상초계기의 임무장비
3.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중인 P-3C. 이번 2차 사업이 완료되면 해군의 항공전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